

특집논문

공포의 시물라크르를 넘어 경계의 윤리학으로: 『2666』에 나타난 세계화 시대의 상징으로서 미국- 멕시코 국경

박 정 원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박정원 (2012), 공포의 시물라크르를 넘어 경계의 윤리학으로: 『2666』에 나타난 세계화 시대의 상징으로서 미국-멕시코 국경.

초 록 로베르토 불라뇨의 유작 『2666』은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시각을 바탕으로, 시우다드 후아레스(Ciudad Juárez)에서 -소설에는 산타 테레사(Santa Teresa)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일어난 여성 연쇄살인사건을 소설화한다. 시작과 끝이 미국-멕시코 국경도시에서 만나는 '뫼비우스의 띠' 구조를 통해서 소설은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199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초래한 구조적 결과로서 지구촌 각지에서 나타나는 세계화의 위기를 상징하는 예임을 암시한다. 본 논문은 이 소설이 살인의 현장을 재현하고 이 비극적 상황에 어떠한 해결책도 보여주지 못하는 무능한 지식인을 묘사함에 있어 '반복'의 기법을 사용한 것에 주목한다. 불라뇨는 '반복'의 서사전략을 통해 공포와 무의미를 소설의 주된 이미지로 만들면서 산타 테레사의 연쇄살인사건이 단순한 범죄와 부패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폭력과 공포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형성된 침묵이야말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놓인 국경지대의 진정한 위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위기는 근대세계가 재생산하는 '악'의 또 다른 형태로서, 결국 도시는 괴물과도 같은 유기체가 되어간다. 이렇게 불라뇨는 소설 전체에 묵시론적, 디스토피아적 세계인식을 형성화하는 한편, 동시에 유토피아적 열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악'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이에 맞서는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윤리학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글로벌 윤리학, '뫼비우스의 띠', 시우다드 후아레스, 여성연쇄살인, 침묵의 시스템

는 독일작가 아르킴볼디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를 경험한 그의 이야기가 기술된다. 마지막에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 소설은 산따 페레사의 현실을 듣게 된 아르킴볼디가 멕시코를 향해 떠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서구세계의 복합적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이 소설은 처음과 마지막이 산따 페레사에서 다시 만나는 형식을 취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인물과 그들의 경험이 멕시코 국경도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피비우스의 띠’ 구조를 보여준다.¹⁾ 이러한 소설의 독특한 구조적 형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소설의 편집자인 익나시오 에체바리아(Ignacio Echevarría)는 후기에서 볼라뇨가 죽기 전에 출판사의 경제적 사정과 홀로 남겨질 자녀들을 위해 책을 다섯 권으로 나누어 출판해줄 것을 부탁했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소설을 구성하는 다섯 장이 부분적으로 독립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토피아와 탈주를 암시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큰 틀에서 내용적, 형식적으로 연결된다는 점과, 볼라뇨가 『야만스러운 탐정들 *Los detectives salvajes*』의 연장선상에서 애초에 이 작품을 장편소설로 기획했었다는 사실에 기반해 한권의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힌다(Bolaño 2005, 1122-23). 즉, 에체바리아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 소설에는 방대하고 이질적인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통일성이 존재하며, 볼라뇨는 이를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이라는 장소를 선택한다. 따라서 『2666』에 나타나는 ‘피비우스의 띠’ 구조는 작가 볼라뇨의 세계관과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전략적 서사장치라 볼 수 있다. 소설은 유럽과 아메리카

1) 에셔(Escher)의 작품 “피비우스의 띠 II”는 안과 밖, 겉과 속이 구분되지 않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 안에서 이질적 장소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각각의 개미들은 결국 동일한 궤도에서 운동하는 동일한 운명에 놓인다. 이 역설은 얼핏 독립되고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구성원들과 관계와 실제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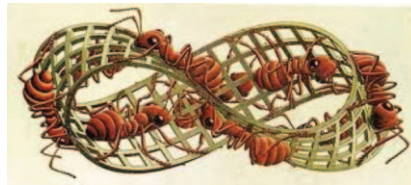


그림. “피비우스의 띠 II”(M.C. 에셔, 1963)

리적 가치를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악순환적 구조로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력과 이에 대한 무기력함을 가감 없이 재현하려는 현실주의적 태도, 그리고 이러한 동일성의 역사에 파열을 가져올 차이를 생성하고자 하는 유포피아를 향한 잠재된 무의식과 윤리적 요구 사이의 서사적 긴장감이 『2666』의 중심축을 이룬다.

II. 대위와 반복: 연쇄살인 사건의 재현을 위한 서사전략

수백 명의 여성이 실종되었다가 도시와 그 주변의 사막에서 주검으로 발견된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이 의문의 사건에 관심을 가진 유럽과 미국, 그리고 멕시코의 수도에서 기자, 저널리스트, 수사관, 평론가, 지식인들이 이 국경도시로 모여든다. 극 중에서 이들은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탐정의 역할을 맡게 되며, 따라서 소설은 노벨라 네그라(Novela negra)와 유사한 형식으로 전개된다. 에드 크리스찬(Ed Christian)은 탈식민 국가 탐정소설의 경우 결말에 이르러 진실이 밝혀지고 사건이 해결됨으로써 기존 질서가 복구되는 장르적 틀을 따르는 대신 탐정의 작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 범죄 현상 뒤에 숨겨진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 탐정은 사건 해결의 영웅이 되는 대신에, 중심과 주변, 안과 밖, 시스템과 희생자들 사이에 위치하여 사회 전체를 조망하고 문제적 상황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Christian 2001, 7-12).

『2666』에서 다양한 등장인물의 눈과 입을 통해 산파 메레사 사건의 본질을 재현하려는 혹은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와 노력들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간다. 일반적 탐정소설의 경향과 달리 사건을 둘러싼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거나 범인이 암시되는 대신에 사건은 점점 더 의문 속으로 빠져든다. 많은 등장인물들이 사건의 폭력성과 반복성에 경악하며, 공포에 떨고, 자신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위험이 두려워 침묵하며, 결국에는 진실에 다가가

려는 대신 원래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고 만다. 이들의 반응과 실패를 통해 볼라뇨는 지식인의 무기력함이 결과적으로 연쇄살인 사건을 지속, 증폭시킨다고 진단한다. 『먼 별 *Estrella distante*』, 『칠레의 밤 *Nocturno de Chile*』 등 이전 소설에서 독재 치하의 칠레에서 자기보신에 급급한 지식인과 문단에 비판의 화살을 겨는 것처럼, 세기말의 야만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코스모폴리탄 지식인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이다.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무력감, 공포심, 도피의식 등은 단지 이 사건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가를 묘사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끝나지 않는 이 비극에 대해 지식인 계급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³⁾

1, 2, 3부에서 유럽과 중심부의 지식인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들의 한계를 비판한다면, 4부 “범죄에 관하여”은 연쇄살인의 현장과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묘사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볼라뇨가 살인 사건과 주검을 재현하는 방식이다.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건의 발생과 그 처리 과정을 지루할 만큼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다음의 인용 부분이 한 예다.

거의 동시에 대략 열여섯 살로 추정되는 다른 여성의 주검이 지난 삼월 세 명의 첫번째 희생자들이 발견된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도시 북동쪽에 위치한 에스프레야 언덕 기슭에서 발견되었다. 치마 속 부위가 칼에 찢리고, 몸은 절단을 당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그 동네 개들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에 따르면, 마른 채구에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소유한 희생자는 까나네아 고속도로에서 발견되었고 히치하이커로 추정된 여자의 쌍둥이 자매처럼 보였다. 먼저 발견된 희생자처럼, 그녀 역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명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산파 테레사 언론은 이들을 저주받은 자매라고 명명했는데, 경찰들의 증거자료를 입수한 이후에는 불운한 쌍둥이로 바꾸어 언급했다. 사건은 카를로스 마린 형사에게로 넘겨졌으며,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Bolaño 2005, 630)⁴⁾

3) 여기서 지식인은 넓은 의미에서 앙헬 라마가 지칭한 라틴아메리카의 ‘문자도시’(la ciudad letrada)로 이해될 수 있다.

4) 이후 소설에서 인용된 부분의 번역은 필자번역을 밝힌다.

시신의 발견, 시체에 대한 묘사, 주변 정황 소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혹은 찾지 않는) 수사,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되고 종결되는 과정이 나열된다. 그러나 이를 일회적으로 보여주는 대신에, 소설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이와 유사하게 발생한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 모든 상황이 복제의 연속체인 일종의 시뮬라크르임을 강조한다. 즉, 볼라뇨의 서사 전략은 처참한 시신과 미궁에 빠진 수사과정을 되풀이해 나열함으로써 각각이 개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계열 안에서 벌어지는 동일한 경우의 연속으로 읽히는 효과를 노린다. 극단적 폭력의 시뮬라크르는 실종, 납치, 죽음이라는 비극이 더 이상 특별한 의미와 사회적 반향을 지니는 사건이 아니며 이미 산파 테레사를 구성하는 메커니즘의 일부가 되어 시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급기야는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것은 이 사건의 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는데, 반복되는 패턴을 넘어 이제는 독립된 구조를 가진 하나의 유기적인 체제로서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들뢰즈에게 ‘반복’은 기존의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단순 복제를 지칭하지 않는다. 오히려 차이가 만들어 내는 역학들이 하나의 계열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복은 고정된 틀이라기보다는 유사함 속에서의 운동이고, 그 무한한 계열 속에서 또 다른 차이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시뮬라크르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들뢰즈는 이 체계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할 가능성을 지닌 되기(becoming)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Deleuze 1991, 136). 더글라스 호프스태터는 『괴델, 에셔, 바흐: 영원한 황금노끈』(1999)에서 대위법을 통해 들뢰즈와 유사한 논리를 전개한다. 대위법의 중요 기법 중 하나인 ‘모방’과 ‘변주’는 한 성부의 멜로디를 다른 성부에서 반복하거나 약간의 변화를 주는 형태로 화성진행을 맞추어 나가면서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형태이다. 그에 따르면, 에셔의 “피비우스의 띠 II” 역시 대위가 적용되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위치의 개미들이 동일한 경로를 따르는 반복적인 움직임은 통해서 피비우스의 띠라는 하나의 무한운동 구조가 형성된다. 즉, 반복과 변주의 조합은 그 연결적 행위를 통해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면서 동

일자 모방 자체이라는 그 논리를 넘어 새로운 존재로서 의미화의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2666』에서의 반복과 대위는 역설적으로 무의미라는 의미를 생산한다.⁵⁾ 로베르토 폰세-코르데로(Roberto Ponce-Cordero)는 이 소설이 “기표의 과잉과, 기의의 부재”를 그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한다(2008, 76). 장편소설에 펼쳐진 다양한 인물 군상과 그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실패와 무력감에 관한 것이다. 폭력과 죽음 앞에 정부는 침묵하며 지식인들은 이를 재현할 언어를 찾지 못한 채 ‘괴물’, ‘환영’, ‘악마’ 등의 단어로써만 그들의 공포를 표현할 뿐이다. 따라서 기존의 틀로 자리 잡은 모든 언어와 제도는 의미를 상실한다. 소설에는 헛되고 의미 없음(sinsentido)을 암시하는 단어 “무”(nada)가 자주 등장한다. 예컨대, “문학의 미래에 대한 에세이는 ‘무’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무’로 끝난다”(Bolaño 2005, 896). “전체적으로 아무 것도 아니다”(Bolaño 2005, 1098)라고 표현된다. 즉, 폭력과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시물라크르의 운동은 결국 어떤 의미와 가치도 획득하지 못한 채 무의미의 시스템이라는 무한순환구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소설은 벗어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세계 인식과 더불어, 기존 제도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부조리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라노의 서사전략은 연쇄살인사건을 통해 순환적 묵시론을 형상화하는 소설의 독특한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III. 세계화의 위기와 근대의 파국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무의미의 순환구조를 보여주는 4부 “범죄에 관하여”는 멕시코시티에서 사건을 취재하러 온 실존인물 세르히오 곤살레스 로

5) ‘반복’의 서사전략은 볼라노의 다른 소설에서도 나타난다. 『아메리카의 나치문학 *La literatura nazi en América*』은 이 방식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텍스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치체제에 부여, 혹은 침묵했던 이들의 이름과 그 행적이 백과사전과도 같이 반복적으로 나열되는 형식을 취한다.

드리게스(Sergio González Rodríguez)의 이야기로 막을 내린다. 죽어간 희생자들이 원래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성이거나 창녀들이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정부 당국을 믿던 그는 어느 날 한 여성접대부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핵심에 다가가게 된다.

여기 산파 페레사에서 창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직업적 관점에서 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자 이 접대부는 죽어가는 이들은 창녀가 아니라, 공장 노동자들이라고 대답한다. 여공들, 여공들이라고요. 세르히오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순간 이제까지 간과하고 있던 상황이 섬광처럼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Bolaño 2005, 583)

살해된 여성의 대부분이 멕시코의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이민자 출신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마킬라도라의 공장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이 범죄 사건을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국면으로 확장시킨다.⁶⁾ 세르히오는 헬리콥터에서 사막 한가운데에 펼쳐진 공장지대를 바라보면서 이 국경도시의 팽창과 ‘상대적인 경제적 활력’의 동력이 되는 마킬라도라 산업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적어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축복’ 뒤에 도사리고 있는 공적, 제도적 무관심으로 인해 대부분이 여성인 마킬라도라 노동자들은 저임금, 권리의 박탈, 공공서비스와 복지의 결여 및 치안의 부재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폭력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며, 죽음의 위협에까지 직면하게 된다. 볼라노는 이렇게 연쇄살인의 비극을 세계화라는 경제체제의 변화와 연결하여 추론함으로써 이 사건이 단순히 멕시코라는 한 국

6) 영어로는 “Sweat Shop”으로 번역되는 이 노동집약형 산업형태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여 원자재를 조립하고 완성된 상품을 수출하는 다국적 생산방식을 의미한다. 멕시코에는 196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으나, 1994년 관세장벽을 제거하는 북미자유협정(NAFTA) 도입 이후 미국과 접한 멕시코의 국경도시들을 중심으로 이 산업은 붐을 이루며 세계화 시대 주변부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상징하는 모델이 되었다. 이 소설이 암시하는 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는 띠틀아나와 함께 가장 큰 마킬라도라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저 친구들과 함께 후아레스로 눌러갔다 행방불명되고 만다. 미국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상심한 이본은 동생을 찾아 직접 국경을 넘는다. 다행히 동생은 국경수비대와 멕시코 경찰과 연루된 불법포르노 사업 조직으로부터 탈출하여 돌아오지만, 그녀는 어떤 사회적 보호장치도 마련되지 않는 이 국경지대에서 여성의 몸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놓여있는가를 깨닫게 되며 이 연쇄 살인사건을 여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한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음과 같이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신에게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지옥에는 너무 가까운 불쌍한 후아레스! 태드와 리치의 일기는 그 순간 그녀가 따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컴퓨터 파일의 빈 화면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썼다. 그리고 ‘국경에 대한 착취’, ‘종교’ 라고 적어 내려갔다. 이렇게 페이지를 세 개의 칼럼으로 나누었다. 그녀는 이들 사이에서 어떤 패턴을 찾을 때까지 몇 가지 연관성을 떠올리면서 브레인 스토밍을 했다. 착취-북미자유협정(NAFTA)-마킬라도라-노동자-희생자들-국경 수비대?(Gaspar de Alba 2003, 114-15)

가스파르 데 알바는 북미자유협정(NAFTA)이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국제범죄조직의 활동에 재갈을 벗김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결국 후아레스의 폭력을 초래하였다고 분석한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경제 재편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며, 이는 여성의 연대에 기초한 양국가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막의 피』는 이렇게 비극적 사건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따른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해결방법을 제안한다. 알바의 결론과는 달리, 볼라노는 경제적 세계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앞서 언급한 대로 ‘악’의 근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이해에 다다르려 한다. 경제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진 사회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 또한 한계를 지니며 본질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 세르히오 곤살레스 로드리게스는 르포집 『사막에 버려진 유골 *Huesos en el desierto*』(2005)에서 젊은 여성들의 죽음과 범죄 조직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중앙정부 및 지방 관료들의 무능력을

자신에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대화를 통해 볼라뇨는 산파 페레스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공포’를 갖는 포보포비아라는 뗏에 걸려, 도시 스스로가 두려움의 체계를 증식하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이자 괴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서로간의 두려움 속에서 소통은 단절되고 침묵은 커져가면서 이 도시는 폐허의 현장이 된다. 국경지대를 떠도는 하나의 전염병이 된 ‘자기 자신에 대한 공포’는 클라우스 하스라는 독일계 미국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산파 페레스에서 사업을 하던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유기된 채 주검으로 발견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고, 지금까지 자행된 연쇄살인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하스는 감옥에서 권력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오히려 이 격리기관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든다. 이 소식은 뉴스를 통해 산파 페레스 전역에 전달되었고, 시민들이 치외법권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그의 존재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도시가 감옥과 같은 상황으로 변한다. 소설은 감옥과 시민사회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는 아이러니를 통해 산파 페레스 전체가 하나의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진실은 도시 전체를 두려움에 몰아넣은 악명 높은 하스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을 쫓는 ‘악’을 두려워하는 처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감방에서 환상을 보면서 고향을 지른다.

거인. 거대한, 매우 거대한 사람이 당신을 죽이고 모두를 죽일 것이요. 당신 미쳤군, 미친 양키야, 간수가 말했다. 잠깐 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하스는 거인의 발자국이 들린다고 말했다. 거인이 이미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뒤집어 쓴 거인이 저기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다고.(Bolaño 2005, 603)

여기서 하스는 산파 페레스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최종 집행자가 아니라, 공포의 시스템에 의해 조종되는 한명의 꼭두각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악’은 하스 혹은 다른 주체를 통해서 스스로를 구현하는 거대한 구조로서

은 체제와 주체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 성립된 두려움의 정치학으로 이해되기 있기 때문이다. 공포의 첫 번째 단계가 사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억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유기체가 지닌 기관의 일부로서 주체가 자발적으로 위협에 공조하고 참여하기 시작할 때 곧바로 다른 국면, 즉 독재와는 전혀 다른 동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통제체제가 성립된다. 아렌트는 “사막”의 이미지를 통해 침묵으로 황폐해진 공적 공간과 그 침묵을 채우는 두려움이라는 전체주의의 본질을 설명한다(Arendt 1966, 478). 마찬가지로, 『2666』에는 산따 페레스를 둘러싼 소노라 사막이 외부와 고립된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여성들의 상황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기능한다.⁸⁾ 볼라뇨에게 있어 근대의 시간은 직선적 궤적을 통해 발전의 이상이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진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야만”이 자신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며 폭력을 분출하고 인간관계를 절멸시키는 것이 바로 근대의 핵심이다. “아주 단순하게도 역사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갖지 않고, 오히려 순간의 증식인데 그 짧은 순간들 속에서 괴물스러운 측면들이 서로 경쟁한다”(Bolaño 2005, 993). 여기서 볼라뇨는 악의 시뮬라크르로서의 서구 근대의 역사를 그려낸다. 따라서 강간과 살인이라는 이 사건의 ‘비정치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국경이 가져오는 공포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나타난 전체주의적 망령인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 학살은 범죄 세력을 일소하고, 그들과 결탁한 정부와 부패의 고리를 끊고, 법적 정의를 회복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볼라뇨는 산따 페레스와 국경을 지배하는 공포와 침묵의 시스템을 드러내고 침묵으로 황폐화된 생활세계와 인간관계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을 향한 출발점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2666』은 이 사건을 보편적으로 확장시켜 연쇄살인이 다른 폭력과

8) 소설의 표지는 사막이 한 가운데 한 여성이 얼굴을 숨기고 등을 보인 채 홀로 앉아 있는 그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문에는 “지루함의 사막 한 가운데에 놓인 공포의 오아시스”라는 보들레르의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사막을 고립과 공포의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있다.

공포로 전이되고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타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들을 포괄하는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인 포포포비아는 타 민족과 타 인종에 대한 증오, 편견, 차별이라는 세계화 시대와 함께 제기되는 핵심적 문제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가기 위해 중미의 엘살바도르에서 산따 페레사에 도착한 한 이민자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엘살바도르에서 도착한 한 이민자는 알라모스 동네 근처의 마테로에 위치한 프란시스코 학교 뒤쪽에서 시체를 발견한다. 시체는 찢긴 흔적이 없고 여러 개의 버튼이 없어진 블라우스를 제외하고는 옷을 입은 채 버려져 있었다. 이 엘살바도르인은 살인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주 동안 경찰서의 3번 유치장에 살다가 풀려났다. 얼마 후, 그는 국경의 월경 브로커를 통해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다. 애리조나의 사막에서 길을 잃어 삼 일간 걸어서 완전히 탈진한 채로 파타고니아 마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한 농장주인은 이 이민자가 자신의 땅에 토했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후려했다. 그는 하룻밤을 보안관의 감방에서 보내고 이튿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거기에서야 비로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Bolaño 2005, 583)

여기서 미국-멕시코 국경은 포비아가 생산되는 하나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일자리를 위해, 생계를 위해 수천 킬로를 횡단한 이 이주자는 이곳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그는 살인죄로 기소되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며, 미국과 멕시코 양쪽 국가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의심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 공포의 기반 위에 세워진 사회는 필연적으로 위협한 상대를 만들어 내면서, 이들에게 자신의 불안, 분노, 증오 등의 감정을 투사한다.⁹⁾ 엘살바도르 이민자는 연쇄살인범을 대신해 그 대상이 되고 결국 희생된다. 한편, 진정한

9)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 이 소설이 보여주는 양상은 슬라보예 지젝이 『환상의 돌림 병』에서 외국인과 타민족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인식론적,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것과 유사하다. 지젝은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타자는 알 수 없는, 따라서 두려움을 유발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이 과정에서 '환상'이 개입하며 타자는 그 자체로서가 아닌 주체의 감정이 투사되는 장소가 된다.

책임자들(범죄조직, 경찰, 공권력)은 이 이민자의 뒤로 숨고 비극은 계속된다. 이렇게 산타 테레사의 사건이 만들어내는 타자에 대한 일반적 공포는 외국인 혐오증, 차별, 인종주의라는 또 다른 사회적 폭력과 연결된다. 노동의 탈국가적, 탈민족적 이동을 촉진한 세계화로 인해 더 가깝고 친밀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와 이상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국경과 경계가 증식되고 강화되는 역설적 결과에 직면한다. 이렇게 볼라노가 형상화하는 산타 테레사는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구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통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IV. 야만에 대응하는 경계의 지식과 윤리학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은 새로운 지구화 시대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증명할 장소로 각광받았다. 물질,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민족주의 아래 묶여있던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와 더불어 과거의 틀로는 설명에 한계가 있던 다인종적(multiracial), 다민족적(multinacional), 다문화(multicultural)적 현상을 이 경계지대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Néstor García Canclini)는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을 영어/스페인어, 앵글로/라틴, 전통/현대, 고급/대중, 공식/민중문화가 끊임없이 자유롭게 침범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제 3의 문화, 제 3의 국가로 재영토화되는 실험실로 정의하면서, 이 탈민족적, 탈국가적 공간이 라틴아메리카의 복합적 현실과 정체성을 대표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García Canclini 2011, 386-95).

앞서 분석했듯이 볼라노 역시 미국-멕시코 국경을 세계화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하지만, 그에게 가르시아 칸클리니가 주장한 ‘혼종이론’이라는 낙관적이고 조화로운 전망은 극복의 대상이다. 소설에서 형상화한 여성 연쇄살인사건이 보여주듯이, 현실은 폭력과 불평등이 빚어내는 공포로 인해 새로

현실에 대응하는 윤리학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2666』 역시 새로운 지식과 다른 시각, 국경지대에 구조화된 ‘악’에 대항할 존재를 드러낸다. 흥미롭게도 사건의 핵심을 간파하는 인물은 교수, 평론가, 기자, 저널리스트 등의 전통적 지식인이 아니라 작품의 주변부에 위치한 에피소드적 인물들이다. 예컨대 현상 뒤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신비한 눈’을 가졌다는 플로리따 알마다는 산파 페레사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약초를 캐는 노파로 세르히오 곤살레스 로드리게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쇄살인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불가사의한 대답을 하여 오히려 기자를 당황케 한다.

세르히오가 얼마나 큰데요라고 묻자 플로리따는 그의 눈을 쳐다보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유령과도 같이 그녀의 등을 두드리는 소노라의 밤을 느낄 수 있었다. 엄청나게 거대하죠, 라고 플로리따는 말한다. 그것들은 죄짓고 벌받지 않은 것들 같은 건가요? 아니, 아니, 아니요라고 플로리따는 대답한다. 지금 나는 단지 정의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Bolaño 2005, 715)

전통적 지식인의 한 사람인 세르히오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기는하지만 이치에 닿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플로리따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과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은 볼라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법적 질서를 회복하는 법적, 제도적 해결방식에 매몰되지 않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삶의 존재론적 기반을 잠식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현실을 분명히 언급한다. 볼라노에게 그녀의 진단과 경고는 근대적 지식과 기존 제도에 물들지 않은 대안적 형태의 지혜를 의미한다. 또 다른 자리에서 그녀가 말한 “친구들이여, 우리가 침묵을 깨야합니다”(Bolaño 2005, 547)라는 외침은 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 구조화된 침묵과 순응임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또한, 마약조직 보스 가족의 보디가드였다가 경찰서 조사국에서 일하게 된 신참내기 경사 랄로 꾸라는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주변적, 경계적 인물이다. 여기서 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보스와 경찰, 마약조직과 정부의 거대한 밀착관계를 감지한다. 그가

보여주는 아래로부터의 경험과 시각은 실종되어 죽음으로 발견되는 여성들이 공권력과 범죄조직이라는 두 세력 간의 구조적인 커넥션과 관계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소설을 관통하는 무력감과 침묵에 균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존의 지식과 권력의 대척점에 위치한 인물을 부각시키면서 볼라뇨는 중심지 지식인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인식론적, 사회적으로 경계에 놓인 새로운 지식과 인물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이 국경지대는 디스토피아적 현실에 대한 대응이 생성되는 변증법적 장소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플로리파와 꾸라가 전통적 지식인상의 외부에 위치하여 새로운 시각과 지혜를 보여주는 경계적 인물들이라면, 마지막 장에서 마침내 정체가 밝혀지는 은둔 작가 아르킴볼디는 볼라뇨에게 있어 기존의 지식인을 대체하는 윤리학적 모델로 읽힌다. 야만이 지배했던 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유럽에서 아르킴볼디는 거대한 폭력의 구조 앞에 침묵하고 순응하는 것은 결국 체제에 동조하여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임을 깨닫는다. 이 경험은 작가인 아르킴볼디에게 야만과 ‘악’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의식과 행동양식을 제공한다. 소설의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 아르킴볼디는 산파 페레스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전해 듣고 사건의 용의자 중 하나인 하스가 자신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로 그 다음날 그는 멕시코 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왜 이 독일작가가 멕시코로 향하는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소설은 끝을 맺는다. 유일하게 남겨진 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르킴볼디가 자신의 위치와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괴물과도 같은 야만의 현장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세사레아 티나헤로의 희생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비평가, 교수, 조사관, 정치가, 기자들이 산파 페레스에 도착해 사건을 접한 후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 도시와 국경에서 한시바삐 떠나려는 탈주와 도피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위로 근대세계의 ‘절대 악’에 대항해 정의와 생명력을 되살리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이런 맥락에

서 폭력과 부패, 무기력과 침묵이 반복되는 4부는 완전한 ‘절망’과 ‘죽음’이 아닌 ‘삶’과 ‘기대’로 끝을 맺는다.

크리스마스는 산따 페레스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뽀사다를 만들고, 뽀냐따를 부수고, 페깰라와 맥주를 마셨다. 아주 가난한 집들에서조차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들 중 몇몇 거리는 블랙홀처럼 칠흑 같이 어두웠는데, 어딘지 모를 곳에서 새어나오는 미소와 웃음은 이웃들과 낯선 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표식이자 정보였다.(Bolaño 2005, 791)

어둠으로 뒤덮인 거리는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산따 페레스의 현실을 대변한다. 그러나 이런 처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에서, 즉 가난하고 초라한 이들의 삶이 만들어내는 생명력은 비록 어둠을 완전히 거두기에는 미약하지만 빛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활기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한다. 소설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묵시론적 현실인식과 마지막에 나타나는 생명력이 이루어내는 대비는 이렇게 완전한 냉소와 절망에 빠지는 것을 지연시키면서 텍스트에 긴장감과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2666』의 마지막 두 장에서 보여주는 암시적 결말과 징후는 근대의 반복되는 폭력과 세계화 시대의 위기에 대항하는 일종의 대안적 윤리학으로 읽을 수 있다. 소설의 말미에 이르러 사건의 용의자인 하스와 아르킴볼디의 친척관계가 드러나는데 이들은 서구 근대역사가 낳은 도플갱어로, 볼라노는 이를 통해 ‘악’의 구조에 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결단을 내릴 것인가를 묻고있다. 하스가 거대한 폭력의 구조에 항복하면서 스스로가 괴물로 변하는 야만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면, 아르킴볼디는 반대로 이 시스템을 거부하는 주체의 의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대안적 가능성을 상징한다. 야만의 현장에서 침묵하고 도피하고자 한다면 ‘악’이 반복되는 피비우스의 띠와 같은 근대역사의 구조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다. 볼라노에게는 폭력과 야만의 역사를 직시하며 이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시 전체가 침묵에 사로잡히고 모든 언어가 의미를 상실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 한편, 피비우스의 피와 같은 형태로 의미상 시작과 끝이 산따 페레스에서 만나는 소설의 구조는 멕시코 국경을 세계 전체와 연결시킨다. 볼라뇨에게 여성 연쇄살인은 단순히 멕시코의 한 변방도시, 혹은 멕시코와 미국이라는 두 나라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자유시장경제의 신화화가 가져온 정치적, 사회적, 심리화적인 징후가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출되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미국-멕시코 국경은 세계화의 위기가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인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가 야기하는 체제의 종착지점을 의미한다.

볼라뇨는 『2666』을 통해 다시 한 번 서구 근대에 관한 자신의 역사인식을 확인한다. 진보의 이상과 발전에의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폭로하고 발전론적 역사인식을 기각하면서, 근대는 반대로 ‘악’이 반복적으로 자신을 전개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미국-멕시코 국경은 세계화라는 새로운 근대의 물결이 초래한 ‘악’이 나타난 장소로서, 비록 20세기의 폭력과는 사뭇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드러나지만 본질적으로 공포와 침묵이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체제와 다르지 않다. 그의 묵시론적 근대 인식은 모든 낙관론을 의심하고 타협을 경계하면서 법적, 제도적 질서의 복구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요구는 비록 가시적 희망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피비우스의 피와 같이 무한 반복하는 절망적인 묵시론적 역사에 진정한 차이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유토피아적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 근대세계를 지탱하고 이에 봉사하던 기존의 주류권력, 관료, 기관, 지식만으로는 차이와 변화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볼라뇨는 주변화된 인물,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지식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시각과 생명력을 통해 현실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적인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열어놓는다. 또한, 아르킴볼디의 삶이 보여주듯이 두려움과 침묵으로 도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의 과제이자, 세계화 시대의 윤리화임을 역설한다. 이렇게, 『2666』은 묵시론적 재현을 넘어 현실주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와 유토피아적 열망 사

이의 변증법이 만들어낸 세계화 시대의 대서사시로서의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 네스포르 가르시아 칸글리니(2011),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 이성
훈 옮김, 그린비.
- 더글라스 호프스태터(1999), 『괴델, 에셔, 바흐: 영원한 황금 노끈 상, 하』, 박여
성 옮김, 까치글방.
- 로베르토 볼라뇨(2009), 『아메리카의 나치문학』, 김현균 옮김, 을유문화사.
_____(2010), 『먼별』, 권미선 옮김, 열린책들.
_____(2010), 『칠레의 밤』, 우석균 옮김, 열린책들.
_____(2012), 『야만스러운 탐정들』, 우석균 옮김, 열린책들.
- 슬라보예 지젝(2002), 『환상의 돌림병』, 김종주 옮김, 인간사랑.
- Arednt, Hannah(1966), *The Origin of Totalitarianism*, London: Harcourt.
- Bolaño, Roberto(2005), 2666, Barcelona: Editorial Anagrama.
- Candia Cáceres, Alexis(2010), “Todos los males el mal: La “estética de la
aniquilación” en la narrativa de Roberto Bolaño,” *Revista Chilena de
Literatura*, 76, pp. 43-70.
- Christian, Ed(ed.)(2001), *The Post-Colonial Detective*, New York: Palgrave.
- Deleuze, Gilles(1994), *Difference and Repet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onoso Macaya, Ángeles(2009), “Estética, política y el posible territorio de la
ficción en 2666 de Roberto Bolaño,” *Revista Hispánica Moderna* 62, pp.
125-142.
- Gaspar de Alba, Alicia(2003), *Desert Blood: The Juárez Murders*, Houston: The
Arte Público Press.
- González Rodríguez, Sergio(2002), *Huesos en el desierto*, Barcelona: Editorial
Anagrama, 2002.
- Lee, Kyeongmin(2012), *La escritura nómada de Los Detectives salvajes de
Roberto Bolaño*, Doctoral dissertation.
- Ponce-Cordero, Roberto(2008), “2666=0: Sobre el exceso de significantes y la

ausencia de significación en 2666,” Osamayor 19, pp. 75-87.
López-Vicuña, Ignacio(2009), “Malestar en la literatura: escritura y barbarie en
Estrella distante y *Nocturno de Chile* de Roberto Bolaño,” *Revista chilena
de literatura* 75, pp. 199-215.

박정원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vivajardin@gmail.com

논문투고일: 2012년 11월 9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2일

Imagining New Ethics beyond The Simulacrum of Fear: U.S.-Mexico Border as The Symbol of Globalization in *2666*

Jungwon Park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Park, Jungwon (2012), Imagining new ethics beyond the simulacrum of fear: U.S.-Mexico border as the symbol of globalization in *2666*.

Abstract Roberto Bolaños' posthumous novel *2666* depicts the unsolved serial murders of young women in Ciudad Juárez (called Santa Teresa in the novel) from the global perspective. By creating the *Möbius strip* structure wherein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novel are combined and converge in the U.S.-Mexico border, *2666* demonstrates that this femicide is not an accidental tragedy, instead it symbolizes the crisis of neoliberal global economy which became a dominant system all around the world since the 1990's.

This essay focuses on a narrative strategy wherein Bolaño employs the technique of 'repetition' in describing the murder scenes and illustrating ineptitudes of the intellectuals who are unable to provide any solution to this tragedy. This strategy underscores the fear and meaninglessness which emerge as main images of the novel. *2666* emphasizes that Santa Teresa's femicide goes beyond the issue of crime and corruption. The silence built upon the voluntary consent of citizens who fear the violence and terror constitutes the real crisis of U.S.-Mexican border, a crisis that ends up being a monster, that is, an embodiment of the 'evil' continuously engendered by the modern world. While configuring this dystopian, apocalyptic vision throughout the novel, Bolaño, at the same time, does not abandon his utopian desire and suggests new ethics that can confront the 'evil' without fearing and escaping from it.

Key words Ciudad Juárez, Femicide, Global ethics, *Möbius strip*, Silence system